

‘은퇴’ 윤석민, 팬들과 함께한 특별했던 하루

“윤석민 제 2 인생 응원합니다”



은퇴한 KIA타이거즈 윤석민이 지난 18일 서구 치평동 JS웨딩홀에서 진행된 팬 미팅 행사가 끝난 뒤 참가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윤석민이 팬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했고, 팬들은 윤석민에게 '자부심과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은퇴를 선언한 KIA 타이거즈 윤석민이 지난 18일 팬들 앞에 섰다. 윤석민은 이날 상무지구 밀탑과 JS 웨딩홀에서 팬 사인회와 팬 미팅 행사를 열고 은퇴 발표 후 처음 팬들을 만났다.

오후 3시 시작된 팬 사인회에는 300명 가량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 예상보다 많은 팬이 찾아오면서 사인회는 예정됐던 5시를 넘겨서 마무리됐다.

오후 6시부터는 '윤석민, special thanks to'라는 팬 미팅 행사가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사전 응모를 통해 초청한 팬과 가족, 지인 등 260명이 자리를 했다.

곽정철 코치와 나지완, 김민식, 유재신, 고영창, 심동섭, 홍건희, 임지준, 김운동, 양현중, 문경찬, 박지훈과 홍재호 등 '타이거즈 선수'로 함께 했던 동료들도 행사장을 찾았다. 이들은 양치마를 두르고 서빙 등을 하며 윤석민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이들은 '깜짝' 감사패도 준비해 윤석민을 감동하게 했다.

특히 동기인 곽정철 코치와 후배 홍건희는 사인회부터 '특급 도우미'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윤석민과 친분이 두터운 개그맨 변기수는 MC를 자청해 행사 진행을 도왔다.

팬 사인회·팬 미팅 행사, 동료·팬 260여명 참석해 성황
중국·제주도·서울 등 각지서 참석...개그맨 변기수 사회
투수조 깜짝 감사패...유니폼·글러브 등 경매 수익금 기부



행사 진행을 맡은 개그맨 변기수(왼쪽)



기념패 전달 뒤 기념촬영을 하는 양현중(왼쪽부터) 윤석민 심동섭 홍건희

팬들이 남겨준 응원 댓글 등을 직접 소개하며 행사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윤석민은 팬들의 질문에도 답하며 소통했다.

통 크게 식사를 대접한 윤석민은 팬들과 정성을 모아 이웃 사랑도 실천했다. 팬들을 위해 연도별 유니폼, 점퍼 등을 행사 경품으로 준비한 윤석민은 아끼던 글러브도 경매에 내놓았다. 4관왕을 이룬 2011년에 사용한 글러브로 150만원에 낙찰됐다.

'만 원의 행복' 이벤트와 경매 수익금, 개인 기부금을 더해 1000만원을 마련한 윤석민은 이를 광주지역발달장애인복지협회 광산구지부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에 전달했다.

나눔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2월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팬들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유모차를 끌고 행사장에 등장한 양현중은 "좋지 않게 (선수 생활이) 마무리돼서 후배로서 마음이 아프지만 제2의 인생을 맞이하는 만큼 잘했으면 좋겠다. 이제 후배가 아닌 동생으로서 좋은 일과 행복한 일만 있기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석민은 "처음 행사를 준비하면서 걱정도 했다. 오랜 시간 재할을 했고 최근 1군에서 활약도 없어서 고마운 마음

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봐 걱정했다"며 "하지만 걱정이 무색할 만큼 많은 분들이 오셨다. 더 좋은 식사와 경품을 준비하지 못한 것 같아 오히려 마음이 무겁다. 팬들이 좋아해서 너무 감사했다. 개인적으로 해본 첫 행사인데 잘 치러서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감사패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후배들이 신경 써줘서 감동받았다. 선뜻 도와준 것도 너무 고맙다. 앞으로 같은 일은 안 하지만 서로 좋은 일 어려운 일 함께 하면서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며 "지금 다들 운동하고, 시즌 준비하느라 중요한 시기인데 나를 위해 시간을 내줘서 고맙다"고 동료들에게 감사의 말도 전했다.

선수 시절 팬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했다는 '미안함' 속에서도 '자부심'을 얻은 그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선수라는 '책임감'으로 살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석민은 "마지막'이런 게 아니라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준비한 행사인데 하고 나니까 뭔가 정말 끝났다는 느낌이 들긴 들었다. 많은 사랑을 받은 선수로 그 기억 잊지 않고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하며 살겠다"고 제2의 삶을 이야기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

‘컬스데이’ 여자컬링

김은지·엄민지·김수지·설예은·예지
예선 1위로 세계선수권 출전권 획득

여자컬링 국가대표팀인 경기도청(스킵 김은지)이 2020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 티켓을 획득했다.

경기도청은 지난 18일 핀란드에서 열린 2020 세계예선대회 플레이오프 결승전에서 이탈리아를 6-5로 꺾었다.

1엔드에 1점을 뽑은 경기도청은 2엔드 2점을 내줬지만 3엔드에 2-2 동점을 만들었다.

4-5엔드에는 1점씩 내줬지만, 6-7-8엔드에 연이어 1점씩 따내며 5-4로 경기를 뒤집었다. 9엔드에 1점을 내줬지만 10엔드 1점 획득하며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앞서 경기도청은 13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예선 라운드 robin에서 7연승을 달리며 1위로 플레이오프에 올랐다.

라운드 robin 2위인 이탈리아를 꺾고 2020 세계예선대회 우승을 확정하면서 3월 14~22일 캐나다 프린스조지에서 열리는 2020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 출전권을 따냈다.

세계예선대회에서는 최종 2위 팀에도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준다. 이탈리아는 라운드 robin 3위 터키와 플레이오프 2위 결정전에 나선다.

경기도청은 2014 소치동계올림픽에 출전해 한국에 컬링을 알리며 '컬스데이' 별명을 얻은 팀으로, 지난해 7월 국가대표 선발전 우승으로 4년 만에 태극마크를 다시 달았다.

스킵 김은지와 서드 엄민지는 소치올림픽 국가대표 출신이고, 김수지(세컨드)와 '쌍둥이 자'매 설예은(리드), 설예지(후보)가 합류하면서 새로운 컬스데이가 완성됐다.

지난해 3월 덴마크에서 열린 2019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에서는 당시 국가대표팀인 춘천시청(스킵 김민지)이 한국 컬링 최초로 세계선수권 동메달을 따냈다. /연합뉴스

4강 가면 호주와 격돌

김학범호, 3위권 들어야 올림픽 본선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는 한국 축구가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 준결승에 진출하면 호주와 격돌한다.

호주는 18일 태국 방콕의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8강전에서 연장전 끝에 시리아를 1-0으로 물리치고 4강에 올랐다.

2013년 8강 진출 이후 두 차례 대회에선 조별리그 탈락했던 호주는 이번 준결승 진출로 역대 AFC U-23 챔피언십 최고 성적을 예약했다.

조별리그 C조에서 3전 전승으로 1위를 차지한 한국이 19일 요르단과의 8강전에서 승리하면 호주와 22일 오후 10시 15분(한국시간) 랑싯의 탐사트 스타디움에서 준결승전을 치르게 된다.

이번 대회는 2020 도쿄 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을 겸한다. 3위 안에 들면 도쿄행 티켓을 거머쥐는 만큼 준결승전 승리는 곧 올림픽 본선행 확정을 의미한다.

조별리그 A조 1위(1승 2무)로 8강에 오른 호주는 B조 2위(1승 1무 1패) 시리아와 100분 넘게 지루한 공방을 이어가다 연장 전반 11분 '0의 균형'을 깨뜨렸다. 중원에서 에이든 오닐이 날카로운 패스로 수비 사이를 깨물었고, 알 하산 투레가 페널티 지역 왼쪽을 파고들어 골키퍼를 피해 침착하게 오른 발로 마무리했다. 앞서 랑싯에서 열린 다른 8강전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개최국 태국을 1-0으로 제압하고 준결승에 선착했다. /연합뉴스

광주 FC “하나되어 돌아오겠다”



내달 13일까지 태국 치앙마이에서 2차 훈련 ... 본격 주전 경쟁

K리그1에 도전하는 광주 FC가 태국 치앙마이에서 육성 가리기에 나선다.

프로축구 광주 선수단이 2차 전지훈련을 위해 19일 태국 치앙마이로 떠났다.

광주는 오는 2월 13일까지 26일간 진행될 2차 동계훈련에서 실전 감각 향상과 함께 2020시즌 유망 골키퍼에 초점을 맞춘다.

광주는 앞서 지난 2일 순천에 1차 동계훈련 캠프를 차리고 담금질을 시작했다. 2주간의 훈련 기간 체력 강화에 집중할 광주 치앙마이에서는 본격적인 주전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박진섭 감독은 국내 클럽, 태국 현지 팀과 예정된 6차례 연습경기를 통해 기존 선수와 영입 선수 간 최상의 조합을 구성하겠다는 생각이다.

박진섭 감독은 "기존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수단 모두 조직력과 팀워크 부분에서 큰 자신감

을 보이고 있다. 영입선수들과의 호흡과 유대감이 빠르게 좋아졌다"며 "연습경기를 통해 팀 전술에 맞는 조합을 찾고 장점을 극대화해 K리그1에서 경쟁력 있는 팀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행 비행기에 오른 선수들의 각오도 특별했다. 광주 원클럽맨인 여들은 "선수단 모두 지난 시즌 우승은 잊고 오로지 K리그1 무대를 향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며 "광주의 가장 큰 장점은 조직력이다. 많은 이야기와 소통을 통해 더 단단한 '원팀'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 시즌 새로 광주에 합류한 국가대표 출신 김창수도 "팀에 합류해서 실감한 광주의 키워드는 성실, 열정, 희생, 그리고 '원팀'이다"며 "개인 실력 차가 크지 않아 베테랑들도 훈련을 게을리할 수 없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